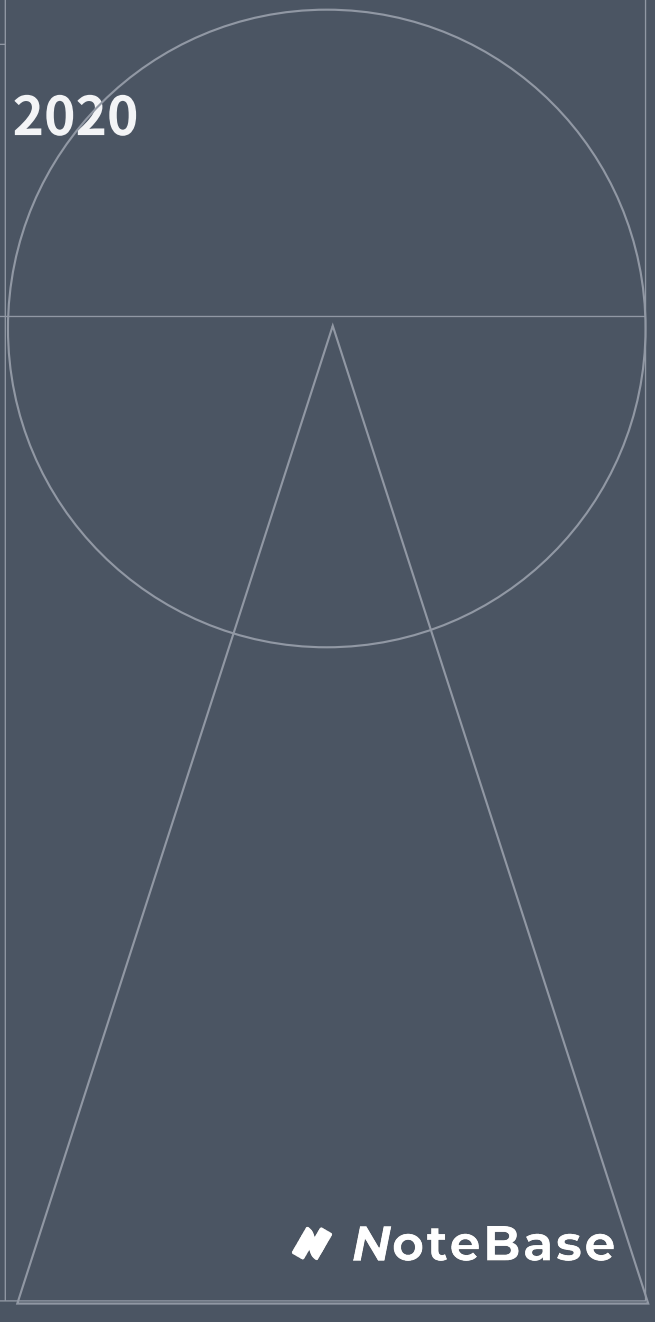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지방직/7급 · 국어 · 2020



NoteBas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지방직/7급 · 국어 · 2020

공무원/지방직/7급 · 국어 · 2020

문 1. 밑줄 친 외래어 표기가 옳은 것은?

① 그 주제로 심포지엄을 열었다.
② 위험물 주위에 바리케이트를 쳤다.
③ 이 광고에 대한 컨셉트를 논의했다.
④ 인터넷을 통해 많은 컨텐츠가 제공되었다.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외래어 표기법에 맞는 표기를 가려내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외래어는 원어의 발음과 외래어 표기법에 따라 적으며, 익숙하게 쓰이는 표기라도 표준 표기와 다를 수 있다. 심포지엄은 symposium의 표준 표기이고, 바리케이드는 barricade, 콘셉트는 concept, 콘텐츠는 contents의 표준 표기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symposium은 '심포지엄'으로 적는 것이 표준 표기이므로 옳다.
② X. 틀린 표현은 '바리케이트'이다. barricade는 '바리케이드'로 적는다.
③ X. 틀린 표현은 '컨셉트'이다. concept는 '콘셉트'로 적는다.
④ X. 틀린 표현은 '컨텐츠'이다. contents는 '콘텐츠'로 적는다.

오답 포인트

②의 '바리케이트'와 ③·④의 '컨' 표기는 실제 사용에서 자주 보이지만 표준 표기가 아니다. 특히 '콘셉트'와 '콘텐츠'의 첫 음절을 '컨'으로 적는 실수를 주의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외래어 표기 문제에서는 익숙한 표기인지보다 표준 표기 사전에 실린 형태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같은 첫소리라도 concept는 '콘셉트', contents는 '콘텐츠'처럼 각각의 표준형을 구별한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바리케이드는 '드', 콘셉트·콘텐츠는 '콘'으로 적는다.

NoteBase

문 2. 밑줄 친 활용형 중 옳은 것은?

① 식은 국을 따뜻하게 데서 먹었다.
② 아이가 소란을 펴서 정신이 없다.
③ 어린이가 한시를 줄줄 왜서 놀랐다.
④ 나는 뜬눈으로 밤을 새서 너무 피곤하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뜻에 맞는 기본형을 먼저 가려, 어미 '-어서'가 붙을 때의 올바른 활용형을 판단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외다'는 '글이나 말을 기억해 그대로 말하다'라는 뜻으로 '외우다'의 준말이다. '외다+어서'는 '외어서'가 되고, 이를 줄여 '왜서'로 쓴다.
'데우다'는 식은 것을 덥게 하는 말이고, '피우다'는 '소란을 피우다'처럼 일부 명사와 결합해 그 행동을 나타내는 말이다. '밤을 새우다'는 한숨도 자지 않고 밤을 지내는 뜻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식은 국을 따뜻하게 하는 뜻의 기본형은 '데우다'이다. '데서'는 '데다'의 활용형이므로 문맥에 맞지 않는다. 틀린 표현 '데서' → 올바르게는 '데워서'이다.
② X: '소란'과 결합해 그 행동을 한다는 뜻은 '피우다'를 쓴다. 틀린 표현 '펴서' → 올바르게는 '피워서'이다.
③ O: '외다+어서'는 '외어서'가 되고, '외어서'를 줄여 '왜서'로 쓸 수 있다. 따라서 '한시를 줄줄 왜서'는 올바른 활용이다.
④ X: 목적어 '밤을'과 함께 한숨도 자지 않고 지내는 뜻은 타동사 '새우다'를 쓴다. '새다'는 '밤이 새다'처럼 날이 밝아 오는 뜻이다. 틀린 표현 '새서' → 올바르게는 '새워서'이다.

오답 포인트

③의 '왜서'를 '외서'로 잘못 고치기 쉽다. '외다+어서→외어서'는 줄어들어 '왜서'가 된다. 또한 ④는 '밤이 새다'와 '밤을 새우다'의 자동사·타동사 구별을 묻는 함정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문맥에 맞는 기본형을 확정한 뒤 '-어서'를 붙인다. 식은 것을 덥게 하면 '데우다', 소란을 일으키면 '피우다', 밤을 목적어로 삼아 지내면 '새우다'를 적용한다. '외다'처럼 모음으로 끝나는 말은 '외어서'가 줄어든 형태까지 확인한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외다→왜서, 데우다→데워서, 피우다→피워서, 밤을 새우다→새워서이다.

NoteBase

문 3. ㉠~㉣의 전개 순서로 가장 자연스러운 것은?

1900년대 이후로 다른 문자를 지양하고 한글로만 문자 생활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 이에 따라 각급 학교 교재에 한자는 괄호 안에 넣는 조치를 취했다.
㉡ 그 과정에서 그들이 가장 고심했던 일은 우리말 어휘의 반 이상을 차지하는 한자어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는 것이었다.
㉢ 한글학회의 『큰사전』에서는 모든 단어의 표제어는 한글로 적었고 괄호 속에 한자, 로마자 등 다른 문자를 병기하였다.
㉣ 이로 인해 1930년대 이후에 우리 어문 연구가들은 맞춤법과 외래어 표기법을 제정하고 표준어를 사정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사전 편찬 사업을 추진했다.

① ㉡ - ㉠ - ㉢ - ㉣
② ㉡ - ㉢ - ㉠ - ㉣
③ ㉣ - ㉡ - ㉢ - ㉠
④ ㉣ - ㉢ - ㉠ - ㉡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지시 표현과 시간적·논리적 선후 관계를 근거로 문단의 전개 순서를 배열하는 문제이다.

올바른 순서

1. ㄹ — 한글 전용 경향에 따라 1930년대 이후 어문 연구가들이 맞춤법·외래어 표기법·표준어를 정하고 사전 편찬을 추진한다.
2. ㄴ — ‘그 과정’은 ㄹ의 어문 정비와 사전 편찬 추진 과정을 가리키며, 이때 한자어 처리 문제가 제기된다.
3. ㄷ — 한자어 처리 원칙이 『큰사전』의 표제어 표기에 적용되어, 표제어는 한글로 쓰고 한자·로마자 등은 괄호 안에 병기한다.
4. ㄱ — ‘이에 따라’는 ㄷ과 같은 한글 중심 표기 방침을 이어받아 학교 교재에서도 한자를 괄호 안에 넣게 되었음을 나타낸다.

왜 이 순서: ㄴ의 ‘그 과정’은 ㄹ에서 제시한 어문 정비·사전 편찬 과정이 먼저 있어야 성립하고, ㄱ의 ‘이에 따라’는 ㄷ의 한글 표제어·괄호 병기 방침을 선행 내용으로 요구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 ㄴ의 '그 과정'이 가리킬 ㄹ의 어문 정비·사전 편찬 추진이 아직 나오지 않았다. 틀린 순서: ㄴ ㅡ ㄱ ㅡ ㄷ ㅡ ㄹ → 올바르게는 ㄹ ㅡ ㄴ ㅡ ㄷ ㅡ ㄱ이다.
② X — ㄴ을 첫머리에 두면 '그 과정'의 선행 내용이 없고, ㄹ이 마지막에 와서 이후 논의를 뒷받침할 수 없다. 틀린 순서: ㄴ ㅡ ㄷ ㅡ ㄱ ㅡ ㄹ → 올바르게는 ㄹ ㅡ ㄴ ㅡ ㄷ ㅡ ㄱ이다.
③ O — ㄹ이 어문 정비와 사전 편찬의 배경을 제시하고, ㄴ이 그 과정의 쟁점을 제기한 뒤, ㄷ이 사전의 표기 방식으로 구체화하며, ㄱ이 그 방침에 따른 학교 교재 조치를 덧붙인다.
④ X — ㄷ 뒤의 ㄱ은 자연스럽지만, ㄴ의 '그 과정'은 ㄹ 직후에 와야 한다. 틀린 순서: ㄹ ㅡ ㄷ ㅡ ㄱ ㅡ ㄴ → 올바르게는 ㄹ ㅡ ㄴ ㅡ ㄷ ㅡ ㄱ이다.

오답 포인트

ㄷ의 『큰사전』 표기 방식과 ㄱ의 학교 교재 조치를 먼저 연결하는 데 그치면 ㄴ의 '그 과정'을 놓치기 쉽다. ㄴ은 한자어 처리라는 논의의 쟁점을 제기하므로, 그 논의가 시작되는 ㄹ 다음에 놓인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순서 배열에서는 '그 과정'처럼 앞 내용을 받는 표현의 선행 문장을 먼저 찾고, '이에 따라'처럼 결론이나 적용을 이끄는 표현은 그 근거가 되는 문장 뒤에 둔다.

암기 포인트

배경 제시 ㄹ → 쟁점 제기 ㄴ → 사전 적용 ㄷ → 교재 적용 ㄱ이다.

NoteBase

문 4. ㉠, ㉡의 한자 표기로 옳은 것은?

○ ㉠ 간발의 차이로 비행기를 놓쳤다.
○ 그의 실력은 장인의 실력에 ㉡ 비견될 만하다.

① ㉠: 間髮, ㉡: 批腑
② ㉠: 簡拔, ㉡: 比房
③ ㉠: 間髮, ㉡: 比肩
④ ㉠: 簡拔, ㉡: 批腑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간발'과 '비견'의 한자 표기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간발은 머리카락 한 올 사이만큼의 아주 작은 차이를 뜻하며 '間髮'으로 쓴다. 비견은 어깨를 나란히 하여 서로 견준다는 뜻이며 '比肩'으로 쓴다. 간발은 間·髮, 비견은 比·肩의 뜻을 연결해 판단한다.

선지별 해설

① X: ㉠ '간발'의 표기 間髮은 맞지만, ㉡의 '批腑'가 틀렸다. '비견'은 서로 어깨를 나란히 한다는 뜻이므로 比肩으로 쓴다. 틀린 표현 批腑 → 올바르게는 比肩이다.
② X: ㉠의 '簡拔'과 ㉡의 '比房'이 모두 틀렸다. '간발'은 間髮, '비견'은 比肩으로 쓴다. 틀린 표현 簡拔 → 올바르게는 間髮, 比房 → 올바르게는 比肩이다.
③ O: '간발'은 間髮, '비견'은 比肩으로 써서 두 한자 표기가 모두 옳다.
④ X: ㉠의 '簡拔'과 ㉡의 '批腑'이 틀렸다. '간발'은 間髮, '비견'은 比肩으로 쓴다. 틀린 표현 簡拔 → 올바르게는 間髮, 批腑 → 올바르게는 比肩이다.

오답 포인트

①과 ④는 ㉡에 뜻과 무관한 批腑을, ②와 ④는 ㉠에 간발의 '머리카락' 뜻이 드러나지 않는 簡拔을 섞어 놓았다. 특히 '비견'의 견은 '어깨 견(肩)'임을 놓치기 쉽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한자어는 음만 맞는 글자를 고르지 않고, 낱말의 뜻을 구성 한자와 연결해 확인한다. '아주 작은 차이'이면 間髮, '서로 견줌'이면 比肩으로 판단한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간발은 '사이(間)의 머리카락(髮)', 비견은 '어깨(肩)를 나란히 비교(比)'이다.

NoteBase

문 5. 밑줄 친 단어가 가리키는 대상을 노래한 것은?

> 珠簾을 고텨 것고 玉階를 다시 쓸며
> 啓明星 돗도록 곳초 안자 ᄇᆞ라보니
> 白蓮花 ᄒᆞᆫ 가지를 뉘라셔 보내신고
> — 정철, 「관동별곡(關東別曲)」에서 —

① 구룸 빗치 조타 ᄒᆞ나 검기를 ᄌᆞ로 ᄒᆞᆫ다
ᄇᆞ람 소리 묽다 ᄒᆞ나 그칠 적이 하노매라
조코도 그츨 뉘 업기는 믈뿐인가 ᄒᆞ노라

② 고즌 므스 일로 퓌며셔 쉬이 디고
플은 어이ᄒᆞ야 프르는 듯 누르느니
아마도 변티 아닐손 바회뿐인가 ᄒᆞ노라

③ 나모도 아닌 거시 플도 아닌 거시
곳기는 뉘 시기며 속은 어이 뷔연는다
뎌러코 四時예 프르니 그를 됴하ᄒᆞ노라

④ 쟈근 거시 노피 떠서 萬物을 다 비취니
밤듕의 光明이 너만ᄒᆞ니 또 잇느냐
보고도 말 아니 ᄒᆞ니 내 벋인가 ᄒᆞ노라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고전시가에서 비유적으로 제시한 자연물의 원관념을 파악하는 문제이다. 제시문의 '白蓮花'는 흰 연꽃처럼 희고 아름다운 달을 비유한다.

핵심 개념

원관념은 비유가 실제로 가리키는 대상이고, 보조관념은 그 대상을 드러내기 위해 끌어온 대상이다.
'白蓮花'에서는 흰 연꽃이 보조관념이고 달이 원관념이다. 달은 밤을 밝히고 만물을 비추는 자연물이라는 문맥으로 판별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구름 빛', '바람 소리'와 대비하고 '그칠 이 없는 것은 물뿐'이라고 하므로 노래한 대상은 물이다. 틀린 판단은 이 선지를 달을 노래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올바르게는 물을 노래한 선지이다.
② X: '변하지 않을 것은 바위뿐'이라는 말에서 대상이 바위임이 드러난다. 틀린 판단은 이 선지를 달을 노래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올바르게는 바위를 노래한 선지이다.
③ X: '나무도 아니고 풀도 아니며', '속이 비었다'는 대나무의 특징을 말한다. 틀린 판단은 이 선지를 달을 노래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올바르게는 대를 노래한 선지이다.
④ O: '만물을 다 비추니', '밤중의 광명', '내 벗'은 밤을 밝히는 달을 가리킨다. 제시문의 '白蓮花'가 비유한 대상과 일치한다.

오답 포인트

①의 물, ②의 바위, ③의 대는 모두 자연물을 예찬한 작품이라 달과 혼동하기 쉽다. 그러나 ④에는 '밤중의 광명', '만물을 다 비춤'이라는 달의 기능이 직접 제시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고전시가의 비유 대상은 색·형태뿐 아니라 그 대상의 기능과 주변 시간 배경으로 판별한다. 밤을 밝히고 만물을 비추는 대상이면 달, 그치지 않는 흐름이면 물, 속이 빈 식물이면 대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백련화는 흰 연꽃 같은 달이며, 밤중의 광명은 달이다.

NoteBase

문 6. 다음 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생산량이나 소득처럼 겉보기에 가장 간단할 것 같은 경제학적 개념도 이끌어 내는 데 각종 어려움이 따른다. 거기에 수많은 가치 판단이 들어가기 때문이다. 생산량 통계에 가사 노동을 포함하지 않는 것이 한 예이다. 숫자 자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더라도 생산량이나 소득 통계가 생활수준을 정확히 나타낸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특히, 가난한 나라보다 식량, 주거, 의료 서비스 등 기본적 필요를 충족한 상태인 부유한 나라들은 더욱 그렇다.

또 구매력, 노동 시간, 생활수준을 결정하는 비금전적인 요인, 비합리적인 소비 행위, 위치재 등이 초래하는 차이도 고려해야 한다. 행복측정 연구는 이런 문제들을 피하려고 노력하지만, 그 연구에는 더 심각한 문제들이 있다. 행복은 그 자체로 측정이 어렵다는 점과 다양한 선호의 문제가 개입된다는 점 때문이다. 행복은 가치의 영역으로서 그에 대해 부여하는 우리의 관념과 욕망, 선호의 지점이 각기 다를 뿐만 아니라 비금전적인 요인 등 복잡한 차이가 존재하므로 행복측정 연구와 같은 영역은 그 대상을 측정하는 것이 그만큼 어려워진다.

물론 이렇게 문제가 있다고 해서 경제학에서 숫자를 사용하면 안 된다는 말이 아니다. 생산량, 성장률, 실업률, 불평등 수준 등에 관한 주요 숫자를 모르고서는 우리는 실제 세상의 경제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 그렇지만 이 숫자들이 무엇을 말해 주고, 무엇을 말해 주지 않는지를 항상 명심해야 한다.

① 행복측정 연구에서 측정의 어려움은 선호의 문제로 보완될 수 있다.
② 사람들의 생활수준을 측정하는 것은 가난한 나라보다 부유한 나라에서 더 어렵다.
③ 가치 판단은 측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경제학적 개념을 추출하는 데 어려움을 초래한다.
④ 경제학에서 사용하는 숫자는 객관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실제 경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생산량·소득 같은 경제 통계가 생활수준과 행복을 얼마나 정확히 나타내는지에 대한 글의 관점을 파악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경제 통계는 생산량·소득·성장률처럼 경제의 일부 상태를 수치로 나타내는 지표이다. 생활수준과 행복은 기본적 필요의 충족, 구매력, 노동 시간, 비금전적 요인, 개인의 선호 등이 함께 작용하는 가치의 영역이다. 따라서 경제 통계는 실제 경제를 이해하는 데 필요하지만 생활수준이나 행복 전체를 그대로 나타내지는 못한다. 특히 기본적 필요가 이미 충족된 부유한 나라에서는 소득·생산량만으로 생활수준을 가늠하기가 더 어렵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행복측정 연구에서 다양한 선호는 측정의 어려움을 보완하는 요소가 아니라 측정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다. 틀린 표현인 '선호의 문제로 보완될 수 있다'는 '다양한 선호의 문제 때문에 측정이 더 어려워진다'로 고쳐야 한다.

② O: 글은 식량·주거·의료 같은 기본적 필요가 충족된 부유한 나라일수록 생산량이나 소득 통계가 생활수준을 정확히 나타내기 어렵다고 한다.

③ X: 경제학적 개념을 이끌어 내기 어려운 까닭은 가치 판단이 개입하기 때문이지, 가치 판단 자체가 측정 불가능해서가 아니다. 틀린 표현인 '가치 판단은 측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는 '가치 판단이 개입하기 때문에'로 고쳐야 한다.

④ X: 글은 경제 통계가 객관성이 부족하여 쓸모없다고 하지 않는다. 주요 경제 수치를 알아야 실제 경제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고 한다. 틀린 표현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무엇을 말해 주고 무엇을 말해 주지 않는지 유의하면 실제 경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로 고쳐야 한다.

오답 포인트

①은 '선호'를 해결책처럼 바꾸었고, ③은 '가치 판단의 개입'을 '측정 불가능'으로 바꾸었다. ④는 통계의 한계를 지적한 내용을 통계 자체의 무용론으로 과장한 선지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필자의 태도를 묻는 문제에서는 한계 제시 뒤의 결론을 함께 확인한다. 통계가 생활수준·행복을 완전히 대표하지 못한다는 말과 통계를 사용하면 안 된다는 말은 구별한다. 또한 원인과 결과, 어려움을 키우는 요인과 보완하는 수단이 바뀌었는지를 살핀다.

암기 포인트

경제 통계는 필요하지만 전부는 아니다. 부유한 나라일수록 생활수준을 소득·생산량만으로 재기 어렵다.

NoteBase

문 7. 밑줄 친 한자어를 고쳐 쓴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우리 시에서는 그 안건을 부의(附議)하겠다고 밝혔다. → 우리 시에서는 그 안건을 토의에 부치겠다고 밝혔다.

② 당국은 불법 점유 토지를 명도(明渡)하라고 지시했다. → 당국은 불법 점유 토지를 명확하게 파악하라고 지시했다.

③ 우리 조합은 주민들에게 동의서 징구(徵求)를 결정했다. → 우리 조합은 주민들에게 동의서 제출 요구를 결정했다.

④ 이 기업은 상여금을 임금에 산입(算入)할 것인지를 논의했다. → 이 기업은 상여금을 임금에 포함할 것인지를 논의했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한자어의 실제 뜻을 문맥에 맞는 우리말로 고쳐 쓰는 문제이다. 특히 명도(明渡)를 명료·명확의 뜻으로 잘못 연결하지 않는지가 핵심이다.

핵심 개념

부의(附議)는 안건을 회의의 토의·심의에 붙이는 일이다.
명도(明渡)는 점유 중인 토지·건물 등을 비우고 상대방에게 넘겨주는 일이다.
징구(徵求)는 필요한 서류나 동의 등을 요구하여 받아 내는 일이다.
산입(算入)은 계산이나 범위에 넣어 포함하는 일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부의는 안건을 회의의 토의나 심의에 붙이는 뜻이므로, '토의에 부치겠다'로 고쳐 쓴 것은 적절하다.
② X. 틀린 표현은 '명확하게 파악하라'이다. 명도는 토지의 점유를 비우고 넘겨주는 뜻이므로, '불법 점유 토지를 비우고 넘겨주라고 지시했다'로 고쳐야 한다.
③ O. 징구는 필요한 동의서·서류 등을 요구하여 받는 뜻이므로, '동의서 제출을 요구했다'는 적절하다.
④ O. 산입은 어떤 항목을 계산에 넣어 포함하는 뜻이므로, '상여금을 임금에 포함할 것인지'는 적절하다.

오답 포인트

②의 명도(明渡)를 '명확하다'의 명(明)과 연결하면 뜻을 잘못 짚게 된다. 명도는 밝기나 명확함이 아니라 점유물을 비우고 넘겨주는 일과 관련된 말이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한자어를 고쳐 쓴 문항에서는 한 글자씩의 인상으로 뜻을 짐작하지 않고, 문장 속 대상과 행위를 확인한다.
토지·건물의 점유가 나오면 명도는 '비우고 넘김'으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부의는 안건을 붙임, 명도는 점유를 비우고 넘김, 징구는 요구하여 받음, 산입은 계산에 넣음이다.

NoteBase

문 8. 다음 글에서 추론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현재 약 7,000개의 언어가 있지만, 그 본질은 다르지 않다. 인간이 언어를 가지게 된 것이 대략 6만 년 전인데, 그동안 많은 언어가 분기하고 사멸하였다. 오늘날의 모든 언어는 나름대로 특별한 역사를 갖는다. 언어는 살아 있는 생명체와 같아서 지금 이 시간에도 변화는 계속되고 있다. 개별 언어들은 발음과 규칙, 그리고 의미의 세밀한 변화를 현재 진행형으로 겪고 있다. 또한 '피진(pidgin)'과 같이 의사소통의 편의를 위해 급조된 언어도 있는데, 이 언어를 사용하는 집단의 후대는 자연스럽게 '크리올(creole)'과 같은 새로운 언어를 탄생시키기도 한다. 피진과 크리올은 비교적 근래에 형성된 것이므로 그 변화의 역사적 과정을 살필 수 있다. 이를 통해 고대의 언어들이 명멸하는 과정도 이와 유사했을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다.

언어 중에는 영어와 같이 국제적으로 세력을 얻어 글로벌 시대에 의사소통의 가교 역할을 하는 언어도 있다. 이러한 언어들을 '링구아 프랑카(lingua franca)'라고 부른다. 과거에 서양에서는 그리스어나 라틴어가, 동양에서는 한자가 그 역할을 수행하기도 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글로벌 사회에서는 미디어나 교통수단의 발달에 힘입어 현재의 국제 통용어로 사용되는 영어가 과거의 국제 통용어들보다 훨씬 많은 힘을 발휘하고 있다.

① 교류와 소통이 증가하면 언어의 분기와 사멸의 속도가 빨라질 것이다.

② 그리스어나 라틴어는 서양의 다른 언어보다 발음, 규칙, 의미가 쉽게 변하지 않는다.

③ 국제사회에서 영향력이 강한 나라가 등장하면 그 나라의 언어가 링구아 프랑카가 될 수 있다.

④ '어리다'의 의미가 '어리석다'에서 '나이가 적다'로 변화한 것은 피진에서 크리올로 변화한 사례이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언어의 변화·분화, 피진과 크리올, 링구아 프랑카의 개념을 지문 내용에 따라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언어 변화는 발음·규칙·의미가 시간에 따라 달라지는 현상이며, 모든 개별 언어에서 일어난다.
피진은 서로 다른 언어 집단이 의사소통의 편의를 위해 만든 간소한 언어이고, 크리올은 피진을 쓰던 집단의 후대가 이를 모어로 삼아 발달시킨 새로운 언어이다.
링구아 프랑카는 국제적으로 세력을 얻어 여러 집단 사이의 의사소통 매개 역할을 하는 언어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지문은 언어가 오랜 시간 분기·사별해 왔다고만 하였을 뿐, 교류와 소통의 증가가 그 속도를 빠르게 한다고 말하지 않았다. 오히려 교류와 소통은 언어 간 접촉을 늘리는 조건이므로, '분기와 사별의 속도가 빨라질 것이다'라고 단정할 수 없다.
② X. 지문은 개별 언어들이 모두 발음·규칙·의미의 변화를 겪는다고 하였다. '그리스어나 라틴어는 다른 언어보다 쉽게 변하지 않는다'가 틀린 표현이며, 그리스어와 라틴어도 다른 언어와 마찬가지로 변화한다.
③ O. 지문은 국제적으로 세력을 얻은 언어가 의사소통의 가교 역할을 하며 링구아 프랑카가 된다고 설명한다. 국제사회에서 영향력이 강한 나라의 언어가 링구아 프랑카가 될 수 있다는 추론은 타당하다.
④ X. '어리다'의 의미 변화는 한 단어의 의미가 달라진 사례이다. 피진에서 크리올로의 변화는 간소한 접촉 언어가 후대의 모어가 되어 새로운 언어로 발달하는 과정이므로, 두 변화는 같은 사례가 아니다.

오답 포인트

④는 '변화'라는 공통점만 보고 의미 변화와 언어의 발생·발달 과정을 같은 것으로 처리하게 만든다. 또한 ②는 고대의 국제 통용어였다는 사실을 언어 변화가 적다는 성질로 잘못 연결한 선지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지문에 직접 제시된 인과관계인지 먼저 확인한다. 그다음 변화의 대상이 단어의 뜻인지, 언어 자체의 발달인지 구분하고, 링구아 프랑카는 국제적 영향력과 의사소통의 매개 역할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피진은 접촉을 위한 간소한 언어, 크리올은 피진이 모어화되어 발달한 언어, 링구아 프랑카는 국제 소통의 가교 언어이다.

NoteBase

문 9. ㉠~㉤의 음운 변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식용유
㉡ 헛걸음
㉢ 안팎일
㉣ 입학생

① ㉠과 ㉢은 각각 음운의 첨가가 나타난다.
② ㉠과 ㉣은 각각 음운 변동 전과 후의 음운 개수가 같다.
③ ㉡과 ㉢은 각각 음운의 대치가 나타난다.
④ ㉡과 ㉣은 같은 유형의 음운 변동이 있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음운 변동의 첨가·교체·축약을 구별하고, 변동 전후의 음운 수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판단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첨가는 없던 음운이 새로 생기는 변동이므로 음운 수가 늘어난다. 교체는 한 음운이 다른 음운으로 바뀌는 변동이므로 음운 수가 같다. 축약은 둘 이상의 음운이 하나의 음운으로 줄어드는 변동이므로 음운 수가 줄어든다. 식용유[시굥뉴]와 안팎일[안팡닐]에는 ㄴ 첨가가, 입학생[이팍쌩]에는 ㅂ과 ㅎ이 ㅍ으로 줄어드는 축약이 나타난다.

선지별 해설

① O: 식용유[시굥뉴]에는 ㄴ이, 안팎일[안팡닐]에도 ㄴ이 새로 더해진다. 두 낱말 모두 음운의 첨가가 나타난다.
② X: 틀린 표현은 '각각 음운 변동 전과 후의 음운 개수가 같다'이다. 식용유는 ㄴ 첨가로 음운 수가 1개 늘고, 입학생은 ㅂ과 ㅎ이 ㅍ으로 축약되어 음운 수가 1개 줄어든다. 올바르게는 '두 낱말 모두 변동 전후의 음운 개수가 같지 않다'이다.
③ O: 헛걸음[헏꺼름]에서는 음절 끝소리 규칙과 된소리되기로 음운이 바뀌고, 안팎일[안팡닐]에서는 음절 끝소리 규칙·비음화로 음운이 바뀐다. 두 낱말 모두 교체가 나타난다.
④ O: 헛걸음에는 된소리되기, 입학생[이팍쌩]에는 학생 부분의 된소리되기가 나타난다. 두 낱말에는 교체인 된소리되기라는 같은 유형의 음운 변동이 있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②는 '교체는 음운 수가 같다'는 성질을 ㄴ 첨가와 ㅂ·ㅎ 축약이 있는 낱말에도 그대로 적용하게 만든다. 식용유의 ㄴ 첨가와 입학생의 ㅂ·ㅎ 축약을 확인하면 바로 반박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발음을 먼저 적고 원래 음운과 비교한다. 새 음운이 생기면 첨가·음운 수 증가, 음운만 바뀌면 교체·음운 수 유지, 여러 음운이 하나로 줄면 축약·음운 수 감소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첨가=늘어남, 교체=그대로, 축약=줄어듦이다.

NoteBase

문 10. 밑줄 친 단어가 바르게 쓰인 것은?

① 그는 평생 호의호식을 하며 지냈다.
② 그는 환골탈퇴의 자세로 새 일에 임했다.
③ 부모님은 주야장창으로 자식 걱정뿐이다.
④ 산수갑산을 가는 한이 있어도 그 일은 꼭 하고 싶다.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한자어와 관용구의 표준 표기를 정확히 아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호의호식은 좋은 옷과 좋은 음식을 이르는 말이다. 환골탈태는 모습이나 상태가 몰라볼 만큼 크게 달라짐을 이르는 말이고, 주야장천은 밤낮으로 쉬지 않고 계속함을 이르는 말이다. 삼수갑산은 매우 멀고 험한 곳을 이르는 말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호의호식'은 좋은 옷과 좋은 음식을 뜻하는 한자어로, 바르게 쓴 말이다.
② X: 틀린 표현은 '환골탈퇴'이다. '뼈를 바꾸고 태를 빼앗는다'는 뜻의 성어는 '환골탈태'이므로, 올바르게는 '환골탈태의 자세'라고 쓴다.
③ X: 틀린 표현은 '주야장창'이다. 밤낮으로 계속한다는 뜻의 말은 '주야장천'이므로, 올바르게는 '주야장천으로 자식 걱정뿐이다'라고 쓴다.
④ X: 틀린 표현은 '산수갑산'이다. 매우 멀고 험한 곳을 이르는 말은 '삼수갑산'이므로, 올바르게는 '삼수갑산을 가는 한이 있어도'라고 쓴다.

오답 포인트

②의 '탈퇴', ③의 '장창', ④의 '산수'는 각각 익숙한 낱말이어서 성어의 일부처럼 잘못 바꾸기 쉽다. 한자 성어와 관용구는 발음이 비슷하더라도 구성 글자를 임의로 바꾸지 않는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밑줄 친 말이 한자어·성어·관용구이면 뜻만 대강 맞는지 보지 않고, 굳어진 전체 표기를 확인한다. 특히 익숙한 일반 어휘로 바뀐 부분이 있는지 살핀다.

암기 포인트

좋은 옷과 음식은 호의호식, 크게 달라짐은 환골탈태, 밤낮없이 계속함은 주야장천, 험하고 먼 곳은 삼수갑산이다.

NoteBase

문 11. 밑줄 친 어구와 같은 뜻의 한자 성어는?

이생(李生)은 그 이후로 인간사에 게을러져 친척과 빈객의 길흉사가 있어도 문을 닫고 나가지 않았다. 늘 아내 최씨(崔氏)와 더불어 시를 주고받으며 사이좋게 지냈다.
— 김시습, 『이생규장전(李生窺墻傳)』에서 —

① 琴瑟相和
② 女必從夫
③ 談笑自若
④ 男負女戴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사이좋게 지냈다'라는 문맥에 맞는 한자 성어의 뜻을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금슬상화는 거문고와 큰 거문고의 화음이 조화를 이룬다는 데서, 부부 사이가 다정하고 화목함을 비유하는 말이다. 여필종부는 아내가 남편을 따라야 한다는 뜻이고, 담소자약은 어려운 일을 당해도 평소처럼 웃고 이야기하는 태도이며, 남부여대는 가난한 사람들이 살 곳을 찾아 짐을 지고 떠돌아다님을 비유하는 말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琴瑟相和(금슬상화)는 부부가 화목하게 지냄을 뜻하므로, 아내 최씨와 시를 주고받으며 '사이좋게 지냈다'와 일치한다.
② X: '女必從夫'는 아내가 반드시 남편을 따라야 한다는 뜻이다. 틀린 표현은 '부부가 화목함'으로 연결한 점이며, 올바르게는 '아내가 남편을 따름'이다.
③ X: '談笑自若'은 근심스럽거나 놀라운 일을 당해도 태도가 평소와 같아 웃고 이야기함을 뜻한다. 틀린 표현은 '부부의 화목'이며, 올바르게는 '위기에도 평정심을 잃지 않음'이다.
④ X: '男負女戴'는 남자는 지고 여자는 인다는 뜻으로, 가난한 사람들이 살 곳을 찾아 짐을 지고 떠돌아다님을 비유한다. 틀린 표현은 '사이좋게 지냄'이며, 올바르게는 '가난한 이들의 고된 유랑'이다.

오답 포인트

②와 ④는 모두 남녀·부부를 떠올리게 하지만, ②는 부부 관계의 위계, ④는 가난한 이들의 유랑을 나타낸다. 부부 사이의 화목을 직접 뜻하는 말은 ①뿐이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한자 성어는 구성 한자만 보고 뜻을 추정하지 않고, 문맥의 핵심 관계를 먼저 잡는다. ‘부부가 다정하고 화목함’이 핵심이면 금슬상화를 고른다.

암기 포인트

금(琴)과 슬(瑟)의 조화로운 합주 → 금슬상화, 부부 화목이다.

NoteBase

문 12. ㉠~㉣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제목: 인터넷 범죄 증가의 원인
1. 국가적 측면: ㉠ 때문에 인터넷 범죄를 처벌하는 관련 규정이 신속하게 제정되지 않는다.
2. 개인적 측면
(1) ㉡ 때문에 개인 컴퓨터의 백신 프로그램 설치가 미흡하다.
(2) ㉢ 때문에 인터넷상에서 개인 신상 정보 취급이 소홀하게 다루어진다.
3. 기술적 측면: ㉣ 때문에 컴퓨터 보안 프로그램 개발이 미흡하다.

① ㉠: 인터넷 범죄 처벌 규정의 제정 과정이 지나치게 복잡하기
② ㉡: 인터넷 사용 시 백신 프로그램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기
③ ㉢: 자신의 개인 정보는 범죄에 이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안이하게 생각하기
④ ㉣: 컴퓨터 판매량을 늘리기 위한 인프라가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않기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인터넷 범죄 증가의 원인을 국가적·개인적·기술적 측면으로 나누어, 각 원인과 구체적 진술이 알맞게 연결되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국가적 측면은 법·제도의 정비와 집행에 관한 문제이고, 개인적 측면은 이용자의 보안 의식과 개인정보 관리에 관한 문제이며, 기술적 측면은 보안 기술과 프로그램의 개발 수준에 관한 문제이다.
국가적 측면은 규정 제정, 개인적 측면은 백신 설치·개인정보 관리, 기술적 측면은 보안 프로그램 개발이 핵심 키워드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인터넷 범죄 처벌 규정의 제정 과정이 지나치게 복잡하면 관련 규정이 신속하게 마련되지 못하므로 국가적 측면의 원인으로 알맞다.

② O: 인터넷 사용 시 백신 프로그램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백신 설치가 미흡해질 수 있으므로 개인적 측면의 원인으로 알맞다.

③ O: 자신의 개인정보가 범죄에 이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안이하게 생각하면 개인정보를 소홀히 다루게 되므로 개인적 측면의 원인으로 알맞다.

④ X: '컴퓨터 판매량을 늘리기 위한 인프라가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않기'는 보안 프로그램 개발의 미흡함을 직접 설명하지 못한다. 틀린 표현은 '컴퓨터 판매량을 늘리기 위한 인프라'이며, 올바르게는 '컴퓨터 보안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반이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않기'처럼 보안 기술 개발과 직접 관련되어야 한다.

오답 포인트

④는 '인프라'라는 말 때문에 기술적 측면처럼 보이지만, 그 인프라의 목적이 '컴퓨터 판매량 증가'이다. 기술적 측면의 원인이라면 보안 프로그램의 개발·보급과 직접 연결되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원인의 범주를 먼저 정한 뒤 선지의 핵심 명사를 확인한다. 법·규정은 국가적 측면, 이용자의 태도·관리 습관은 개인적 측면, 보안 기술·프로그램 개발은 기술적 측면으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국가=규정, 개인=의식·관리, 기술=보안 프로그램 개발이다.

NoteBase

문 13. 다음 글에서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금융 회사와 은행 상당수가 파랑을 상징색으로 쓰고 있다. 파랑의 긍정적 속성에는 정직과 신뢰가 있다. 파랑을 사용한 브랜드는 친근성과 전문성이 높아 보인다. 또한 파랑은 테크놀로지 업계에서 선호하는 색이다. 파랑은 소통의 색으로서 소셜 미디어와 잘 어울린다. 페이스북, 트위터, 링크드인의 색을 생각해 보라. 파랑을 상징색으로 사용한 브랜드가 파랑의 긍정적인 가치로 드러날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 차갑고 불친절하고 무심한 느낌의 부정적인 가치로 나타나기도 한다.

파랑은 기업의 단체복에 자주 사용한다. 약간 어두운 톤의 파란색은 친근하고 진지하며 품위 있는 분위기를 전달한다. 어두운 파란색 단체복은 약간의 보수성과 전통을, 밝은 파란색 단체복은 친근한 소통과 창의적인 사고를 표현한다. 이 색은 교복에도 적합하다. 톤을 잘 선택하면 파랑은 집중에 도움을 주고 차분하게 해 주며 활발한 토론과 의견 교환에 도움을 준다.

① 브랜드의 로고를 만들 때 색이 주는 효과를 고려해야 한다.

② 테크놀로지 업계에서 브랜드에 파란색을 써서 성공한 것은 우연한 선택의 결과로 봐야 한다.

③ 색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려면 색이 주는 긍정적 속성을 잘 파악해야 한다.

④ 색의 톤에 따라 전달하는 분위기가 다르니, 인테리어에 쓸 때 파랑이 지닌 다양한 톤을 알아봐야 한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글에 제시된 파랑의 상징성과 색의 톤에 따른 효과를 바탕으로, 적절한 추론인지 판단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색의 상징성은 색이 일반적으로 불러일으키는 이미지와 가치이다. 파랑은 정직·신뢰·친근함·전문성·소통 등의 긍정적 이미지를 줄 수 있으나, 차갑고 불친절하며 무심한 느낌을 줄 수도 있다.
색의 톤은 같은 색이라도 밝기와 분위기의 차이로 전달 효과를 달리하는 요소이다. 어두운 파랑은 보수성·전통성을, 밝은 파랑은 친근한 소통과 창의적 사고를 나타낸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글은 금융 회사와 은행이 파랑을 상징색으로 쓰고, 파랑이 브랜드에 정직·신뢰·친근함·전문성의 이미지를 준다고 설명한다. 따라서 로고를 만들 때 색이 주는 효과를 고려해야 한다는 추론은 적절하다.

② X. 틀린 표현은 '우연한 선택의 결과'이다. 글은 파랑이 테크놀로지 업계에서 선호되고, 파랑이 전문성·소통 등의 긍정적 이미지를 줄 수 있다고 제시한다. 올바르게는 테크놀로지 업계의 브랜드가 파랑을 사용하는 것은 색이 주는 상징성과 이미지가 고려된 선택으로 볼 수 있다.

③ O. 글은 파랑의 긍정적 가치와 부정적 가치를 함께 제시한다. 색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려면 우선 그 색이 주는 긍정적 속성을 파악해야 한다는 추론은 적절하다.

④ O. 글은 어두운 파랑과 밝은 파랑이 각각 다른 분위기와 의미를 전달한다고 설명한다. 따라서 인테리어에 파랑을 사용할 때 다양한 톤의 차이를 알아야 한다는 추론은 적절하다.

오답 포인트

②는 '파랑이 테크놀로지 업계에서 선호된다'는 글의 근거를 '우연한 선택'으로 뒤집은 선지이다. 글의 구체적 사례가 색의 효과를 뒷받침하는지, 그 효과를 부정하는지 구분하는 데서 오답이 갈린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추론 문제에서는 글에 제시된 원인·근거와 선지의 결론이 같은 방향인지 확인한다. 글이 색의 상징성과 효과를 설명하는데 선지가 이를 우연이나 무관한 결과로 바꾸면 적절하지 않은 추론이다.

암기 포인트

파랑은 신뢰·전문성·소통의 이미지, 톤에 따라 어두우면 전통성·밝으면 친근함·창의성이다.

NoteBase

문 14. 다음 발화에 나타난 주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신어(新語)에 대해 말할 때, 보통 유행어나 비속어, 은어와 같은 한정된 대상을 떠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신어 연구의 대상은 특정한 범주의 언어, 소수 집단의 언어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어려운 전문 용어는 의사소통의 효율성이나 교육적 목적을 위해 순화된 신어로 대체할 필요가 있는데, 특히, 상당수의 전문 용어는 신어에 대한 정책적인 고려가 필요해 보입니다. 예를 들어 '좌창(痤瘡)'이라는 의학 용어를 대체한 '여드름'은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전문 분야에서도 신어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와 같은 신어는 전문 용어의 순화에도 일정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신어 연구가 단지 새로운 어휘와 몇 가지 주제를 나열하는 연구를 넘어서 한국어 조어론 전반에 대한 연구로 확장되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신어의 영역은 대중이 생산하는 '자연 발생적 신어'의 영역과 더불어 '인위적인 신어'의 영역으로 논의되어야 합니다.

① 신어에서 비속어나 은어가 빠져야 한다.

② 신어는 연구 대상과 영역을 확장해야 한다.

③ 자연 발생적인 신어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

④ 신어는 의사소통의 효율성을 위해 그 범주를 특정해야 한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신어의 연구 대상과 논의 영역이 특정 언어 집단이나 자연 발생적 신어에 한정되지 않고 확장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파악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신어는 새로 생긴 말로, 유행어·비속어·은어만을 뜻하지 않는다. 신어 연구는 특정 범주의 언어나 소수 집단의 언어에 한정되지 않으며, 전문 용어의 순화와 한국어 조어론 전반까지 포괄한다. 신어의 영역은 대중이 만드는 자연 발생적 신어와 의도적으로 만들어지는 인위적 신어를 함께 논의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비속어와 은어를 신어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내용은 없다. 지문은 신어를 말할 때 비속어·은어 등을 떠올리는 경우가 많다고 하면서도, 신어 연구의 대상은 그러한 한정된 범주에 그치지 않는다고 한다. 틀린 표현은 '빠져야 한다'이며, 올바르게는 비속어·은어 등에 한정해서는 안 된다고 한다.

② O: 지문은 신어 연구가 새로운 어휘와 몇 가지 주제를 나열하는 수준을 넘어 한국어 조어론 전반에 대한 연구로 확장되어야 한다고 한다. 또한 신어의 영역도 자연 발생적 신어와 인위적 신어를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하므로 적절하다.

③ X: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고 한 대상은 자연 발생적 신어가 아니라, 의사소통의 효율성이나 교육적 목적을 위해 순화할 필요가 있는 상당수의 전문 용어이다. 틀린 표현은 '자연 발생적인 신어'이며, 올바르게는 전문 용어의 순화와 관련된 인위적 신어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고 한다.

④ X: 의사소통의 효율성을 위해 순화된 신어로 대체할 필요가 있다고 한 것은 어려운 전문 용어이다. 신어의 범주를 특정해야 한다는 내용은 지문과 반대이다. 틀린 표현은 '그 범주를 특정해야 한다'이며, 올바르게는 신어의 연구 대상과 영역을 특정 범주에 한정하지 않아야 한다고 한다.

오답 포인트

③은 '정책적 고려'라는 표현만 보고 맞다고 판단하기 쉽다. 그러나 지문은 그 고려의 대상을 자연 발생적 신어가 아니라 전문 용어를 순화하는 신어와 연결한다. ④도 '의사소통의 효율성'을 근거로 들지만, 범주를 특정한다는 결론은 지문의 '한정되지 않는다'와 정반대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글의 주장 문제에서는 대상과 범위를 나타내는 말을 먼저 확인한다. '한정되지 않는다', '확장되어야 한다', '더불어'와 같은 표현이 나오면 선지가 대상을 제외하거나 범위를 좁히는지 살핀다.

암기 포인트

신어 연구는 유행어만이 아니라 전문 용어의 순화와 조어론까지, 자연 발생적 신어와 인위적 신어를 함께 포괄한다.

NoteBase

문 15. 다음 글의 화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열 두 째 김도 길샤 설흔 날 지리(支離)ᄒᆞ다. 옥창(玉窓)에 심ᄀᆞᆫ 매화(梅花) 몃 번이나 픠여진고. 겨울 밤 차고 찬 제 자최눈 섯거 치고, 여름날 길고 길 제 구즌 비는 므스 일고. 삼춘 화류(三春花柳) 호시절(好時節)의 경물(景物)이 시름업다. 가을 돌 방에 들고 실솔(蟋蟀)이 상(床)에 울 제, 긴 한숨 디는 눈물 속절 업시 헴만 만타. 아마도 모진 목숨 죽기도 어려울사. 도로혀 풀쳐 혜니 이리 ᄒᆞ여 어이 ᄒᆞ리. 청등(靑燈)을 돌라 노코 녹기금(綠綺琴) 빗기 안아, 벽련화(碧蓮花) 한 곡조를 시름 조ᄎᆞ 섯거 타니, 소상(瀟湘) 야우(夜雨)의 댓소리 섯도는 ᄃᆞᆺ, 화표(華表) 천년(千年)의 별학(別鶴)이 우니는 ᄃᆞᆺ, 옥수(玉手)의 타는 수단(手段) 녯 소래 잇다마는, 부용장(芙蓉帳) 적막(寂寞)ᄒᆞ니 뉘 귀에 들리소니. 간장(肝腸)이 구곡(九曲)되야 구븨구븨 믄쳐서라. 출하리 잠을 드러 꿈의나 보려 ᄒᆞ니, 바람의 디는 닢과 풀 속에 우는 즘생, 므스 일 원수로서 잠조차 깨오는다. 천상(天上)의 견우 직녀(牽牛織女) 은하수(銀河水) 막혀셔도, 칠월 칠석(七月七夕) 일년 일도(一年一度) 실기(失期)치 아니거든, 우리 님 가신 후는 무슨 약수(弱水) 가렷관듸, 오거나 가거나 소식(消息)조차 쓰쳣는고. 난간(欄干)의 비겨 셔서 님 가신 ᄃᆡ 바라보니, 초로(草露)는 맷쳐 잇고 모운(暮雲)이 디나갈 제, 죽림(竹林) 푸른 고ᄃᆡ 새 소리 더욱 설다. 세상의 서룬 사람 수업다 ᄒᆞ려니와, 박명(薄命)ᄒᆞᆫ 홍안(紅顔)이야 날 가ᄐᆞ니 ᄯᅩ 이실가. 아마도 이 님의 지위로 살동말동 ᄒᆞ여라.
>
> —「규원가(閨怨歌)」에서 —

① 시간 변화를 통해 슬픔과 기쁨의 감정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② 자신이 처한 상황과 그 심정을 자연물에 의탁해서 드러내고 있다.

③ 자신에게 가해지는 차별과 억압의 원인을 연인과의 이별에서 찾고 있다.

④ 운명에 순응하여 힘든 결혼 생활을 견뎌 온 것에 대해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규원가」의 화자가 자연과 사물을 통해 규중에서 홀로 지내며 임을 그리워하는 심정을 드러내는 방식을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화자는 임과 떨어져 지내는 규중 여인으로, 계절의 변화와 청등·벽련화·난간 등의 자연물·사물을 매개로 고독, 원망, 그리움을 드러낸다. 자연 경물은 화자의 정서를 비추거나 대비하는 역할을 하며, 화자의 기쁨을 나타내는 대상은 아니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봄·여름·가을·겨울의 시간 변화는 제시되지만, 화자의 감정은 기쁨으로 바뀌지 않는다. '시름없다', '눈물', '긴 한숨', '설다'에서 지속되는 슬픔과 그리움이 드러난다. 틀린 표현은 '슬픔과 기쁨의 감정 변화'이며, 올바르게는 시간 변화 속에서도 지속되는 고독과 그리움을 나타낸다고 해야 한다.

② O: 매화·자췌·화류 같은 계절 경물과 청등·벽련화·난간 등을 통해 화자가 처한 외로운 상황과 임을 기다리는 심정을 드러낸다.

③ X: 화자는 연인과의 이별 때문에 자신에게 가해지는 사회적 차별과 억압의 원인을 찾지 않는다. 임이 떠난 뒤의 외로움과 그리움을 토로할 뿐이다. 틀린 표현은 '차별과 억압의 원인'이며, 올바르게는 임과의 이별로 인한 개인적 고독과 원망을 드러낸다고 해야 한다.

④ X: 화자는 운명에 순응한 결혼 생활을 자부하지 않는다. '야우의 닛소리', '추로', '모운', '새 소리' 등을 들으며 임을 기다리고, 임과의 이별을 서러워한다. 틀린 표현은 '자부심'이며, 올바르게는 고독한 처지와 임에 대한 그리움을 한탄한다고 해야 한다.

오답 포인트

①은 계절이 바뀐다는 사실을 감정의 변화로 바꾸어 놓은 선지이다. ④는 규중 여인의 고난을 견디는 모습만 보고 '운명에 순응하는 자부심'으로 단정한 선지인데, 작품의 정서는 한숨·눈물·그리움으로 나타나는 원망과 비애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고전 시가에서 계절 경물과 사물이 반복되면, 먼저 화자의 정서가 무엇인지 한숨·눈물·그리움 같은 정서어로 확인한다. 자연물이 화자의 처지와 정서를 비추는 경우에는 자연물 묘사 자체보다 그에 실린 화자의 감정을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규원가」는 규중 여인이 자연과 사물에 기대어 임을 그리워하고 고독을 토로한 작품이다.

NoteBase

문 16. 다음 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우리 헌법에는 신체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직업의 자유, 주거의 자유, 통신의 자유 등 명시적으로 개별적인 기본권을 정하고 있다. 하지만 인간의 삶에 필요한 자유가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모두 구체적인 이름을 띠고 있을 수는 없다. 그런 이유로 인간이 살아가면서 발견하게 될 자유도 헌법상 보장되는 장치를 할 필요가 있어서 헌법 제37조 제1항에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라고 정함으로써 모든 영역에 걸쳐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그런데 자유는 무한하지도 않고, 방임도 아니다. 이런 자유는 타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정되며, 공동체의 존속과 발전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향유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 헌법이 규율하는 공동체 질서 내에서의 자유는 어디까지나 공동체의 존속, 안전, 평화, 그리고 타인과 더불어 살아가는 상생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헌법에서 보장하는 자유도 이러한 범위에서 제한을 받는 것이기는 하지만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라는 가치들이 있기만 하면 국민의 자유가 마음대로 제한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런 가치에 의해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에도 과잉금지원칙이 적용되고 기본권의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

① 인간의 자유는 공동체의 존속과 발전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향유할 수 있다.
② 헌법 제37조 제1항은 헌법에 열거되지 않은 자유에 대해서 보장하는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③ 헌법에 명시된 자유 외에 새롭게 발견하게 될 자유를 제한할 경우에 과잉금지원칙을 적용한다.
④ 자유는 무한하지도 않고, 방임도 아니므로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구체적인 이름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정답 4번

쟁점

이 문제는 헌법에 열거되지 않은 자유의 보장과 기본권 제한의 한계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은 모든 자유에 특정 시점에서 구체적 이름을 붙일 수 없다는 점이다.

용어 풀이

열거되지 않은 자유와 권리란 헌법에 명문으로 적혀 있지 않더라도 헌법상 보호될 수 있는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핵심 구분

헌법 제37조 제1항은 헌법에 열거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자유와 권리를 경시하지 못하게 한다. 반면 제2항은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률로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 수 있게 하되, 본질적 내용의 침해는 금지한다. 따라서 새롭게 발견되는 자유도 보장되지만, 그 자유를 모두 미리 구체적 이름으로 열거할 수는 없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자유는 타인의 자유와 권리, 공동체의 존속과 발전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향유할 수 있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② O
헌법 제37조 제1항은 헌법에 열거되지 않은 자유와 권리도 경시되지 않도록 하여, 새롭게 발견되는 자유를 보장하는 근거가 된다.

③ O
글은 헌법상 보장되는 자유를 제한할 때 과잉금지원칙이 적용되고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하였다. 열거되지 않은 자유도 제37조 제1항에 따라 보장되는 자유이므로, 이를 제한할 때에도 같은 한계가 적용된다.

④ X
글은 인간의 삶에 필요한 자유를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모두 구체적인 이름으로 붙일 수는 없다고 하였다.
틀린 표현: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구체적인 이름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올바른 표현: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모든 자유에 구체적인 이름을 부여할 수 없으므로, 헌법에 열거되지 않은 자유도 보장한다.

오답 포인트

④는 자유가 무한하지 않다는 설명을 이용해 '구체적 이름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바꾸었다. 그러나 글의 논리는 자유가 새롭게 발견될 수 있으므로 모든 자유를 미리 열거할 수 없다는 데 있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열거되지 않은 기본권을 다룬 글에서는 '모두 미리 열거할 수 있는가'를 먼저 확인한다. 글이 새로운 자유의 보장을 말하면, 모든 자유에 구체적 이름을 붙여야 한다는 진술은 반대 내용인지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열거 밖 자유도 보장, 제한은 법률로·본질 침해는 금지이다.

NoteBase

문 17. ㉠~㉣의 문맥적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당신의 손끝만 스쳐도 소리 없이 열릴 돌문이 있습니다.
뭇사람이 조바심치나 굳이 닫힌 이 돌문 안에는, 석벽 난간 열두 층계 위에 이제 ㉠검푸른 이끼가 앉았습니다.

당신이 오시는 날까지는, 길이 꺼지지 않을 ㉡촛불 한 자루도 간직하였습니다. 이는 당신의 그리운 얼굴이 이 희미한 불 앞에 어리울 때까지는, 천년이 지나도 눈 감지 않을 저의 슬픈 영혼의 모습입니다.

길숨한 속눈썹에 항시 어리운 이 두어 방울 이슬은 무엇입니까? 당신의 남긴 푸른 도포 자락으로 이 눈썹을 씻으랍니까? 두 볼은 옛날 그대로 복사꽃빛이지만, 한숨에 절로 입술이 푸르러 감을 어찌합니까?

몇만 리 굽이치는 강물을 건너와 당신의 따슨 손길이 저의 흰 목덜미를 어루만질 때, 그때야 저는 자취도 없이 ㉢한 줌 티끌로 사라지겠습니다. 어두운 밤 하늘 허공 중천에 바람처럼 사라지는 저의 옷자락은, 눈물 어린 눈이 아니고는 보이지 못하오리다.

여기 돌문이 있습니다. 원한도 사무칠 양이면 지극한 정성에 ㉣열리지 않는 돌문이 있습니다. 당신이 오셔서 다시 천년토록 앉아 기다리라고, 슬픈 비바람에 낡아 가는 돌문이 있습니다.

- 조지훈, 「석문」 -

① ㉠: 임에 대한 오랜 기다림
② ㉡: 임에 대한 변하지 않는 사랑
③ ㉢: 기약할 수 없는 임에 대한 체념
④ ㉣: 임에 대한 사무치는 원한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시 속 사물과 표현이 임을 기다리는 화자의 정서를 어떻게 드러내는지 문맥에 따라 판단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기다림은 임의 부재 속에서도 재회를 바라보며 정성을 지속하는 정서이고, 체념은 더 이상의 기대를 접고 포기하는 정서이다. 이 시의 화자는 돌문이 이끼 낄 만큼 오래 기다리고 촛불을 간직하며 임의 손길을 기다리므로, 중심 정서는 체념이 아니라 지속적인 그리움과 기다림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의 '검푸른 이끼'는 아무도 찾지 않은 돌문에 시간이 오래 흘렀음을 나타낸다. 이는 임을 오래 기다려 온 상황과 연결된다.

② O. ㉡의 '촛불 한 자루'를 꺼지지 않게 간직한 모습은 천년이 지나도 임을 기다리겠다는 변함없는 사랑을 드러낸다.

③ X. 틀린 표현은 '체념'이다. ㉢은 임의 따스한 손길이 화자의 흰 목덜미를 어루만질 때 자신이 티끌로 사라지겠다고 말한 부분으로, 임의 재회를 전제한 간절한 기다림과 소망을 나타낸다. 기약할 수 없는 임을 포기하는 체념으로 보기는 어렵다.

④ O. ㉣의 '열리지 않는 돌문'은 임과의 이별에서 비롯된 사무치는 원한과 슬픔을 상징한다. 화자는 그 돌문이 다시 열려 임이 오기를 기다린다.

오답 포인트

③은 '한 줌 티끌로 사라지겠습니다'만 보고 소멸 의식이나 체념으로 오해하기 쉽다. 그러나 바로 앞의 '당신의 따스 손길'과 '그때야'는 임의 재회를 기다리는 조건을 제시하므로, 화자는 기다림을 포기하지 않는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소멸·죽음의 표현이 나오더라도 그 앞뒤의 조건과 대상에 주목한다. '임이 오면', '손길이 닿을 때'처럼 재회를 전제하는 표현이 있으면 체념보다 기다림·그리움·소망의 정서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조건부 소멸은 포기가 아니라 재회를 기다리는 간절함이다.

NoteBase

문 18. 다음 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작은 산골 간이역에서 제시간에 정확히 도착하는 완행열차를 보기가 그리 쉬운 일은 아님을 익히 알고 있는 탓이다.
더구나 오늘은 눈까지 내리고 있지 않은가. … (중략) …
지금 대합실에 남아 있는 사람은 모두 다섯이다. 한가운데에 톱밥 난로가 놓여 있고 그 주위로 세 사람이 달라붙어 있다.
출감한 지 며칠이 지났건만 사내는 감방 밖에서 보낸 그간의 시간이 오히려 꿈처럼 현실감이 없다. 사내는 출감 후부터 자꾸만 무엇인가 대단히 커다란 것을 빼앗겼다는 느낌을 감출 수가 없었다. 감방 안에서 사내는 손바닥 안에 움켜쥔 모래알이 빠져나가듯 하릴없이 축소되어 가고 있는 자기 몫의 삶의 부피를 안타깝게 저울질해 보곤 했었다. … (중략) …
대학생에겐 삶은 이 세상과 구별할 수 없는 그 무엇이다.
스물넷의 나이인 그에게는 세상 돌아가는 내력을 모르고, 아니 모른 척하고 산다는 것은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 그런 삶은 잠이다. 마취 상태에 빠져 흘려보내는 시간일 뿐이라고 청년은 믿고 있다. 하지만 그는 얼마 전부터 그런 확신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하는 걸 느끼고 있다.
유치장에서 보낸 한 달 남짓한 기억과 퇴학, 끓어오르는 그들의 신념과는 아랑곳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강의실 밖의 질서 …… 그런 것들이 자꾸만 청년의 시야를 어지럽히고 혼란을 일으키고 있는 중이다.
— 임철우, 「사평역」에서 —

① 등장인물들의 과거 삶이 순탄치 않았음을 보여 준다.
② 등장인물들 사이의 갈등이 없이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다.
③ 대합실에서 열차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상황을 그리고 있다.
④ 등장인물들의 구체적인 행위가 객관적으로 기술되고 있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서술자가 인물의 외적 상황만 객관적으로 제시하는지, 인물의 내면까지 직접 드러내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객관적 서술은 관찰 가능한 행동·상황을 중심으로 제시하는 방식이다. 내면 직접 제시는 인물의 생각·감정·확신·혼란을 서술자가 바로 밝혀 주는 방식이다. 이 글은 대합실의 풍경도 보이지만, 사내와 청년의 심리도 직접 제시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사내는 감방 생활을 막 마치고 나왔으며, 청년은 유치장에서 보낸 기억과 퇴학의 경험을 지녔다. 두 인물의 과거가 순탄치 않았음을 알 수 있다.

② O: 사내와 청년이 서로 대립하거나 충돌하는 장면은 제시되지 않는다. 글은 각 인물이 처한 상황과 내면을 병렬적으로 보여 준다.

③ O: 첫머리에서 산골 간이역에 완행열차가 도착할 일과, 대합실에 남은 다섯 사람의 모습이 제시된다. 대합실 사람들은 열차를 기다리는 상황이다.

④ X: '사내는 … 느낌을 감출 수가 없었다', '청년은 믿고 있다', '확신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하는 걸 느끼고 있었다'처럼 인물의 내면이 직접 서술된다. 틀린 표현은 '구체적인 행위가 객관적으로 기술되고 있다'이고, 올바르게는 '인물의 내면 심리도 직접 제시되고 있다'이다.

오답 포인트

대합실의 난로와 사람들의 배치처럼 눈에 보이는 배경 묘사가 있어도, 그것만으로 글 전체가 객관적 서술이 되는 것은 아니다. ④처럼 심리의 직접 제시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인물의 행동·표정·대사만 제시되면 객관적 서술에 가깝다. 서술자가 '느꼈다', '믿고 있다', '확신이 흔들린다'처럼 마음속 상태를 말해 주면 내면의 직접 제시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행동·상황만 제시하면 객관, 생각·감정을 밝혀 주면 내면 직접 제시이다.

NoteBase

문 19. ㉠과 ㉡에 대한 진술 방식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예술의 본질은 무엇인가를 표현하는 것이다. 이 말은 예술이 ㉡ 과학과 마찬가지로 일종의 설명적 기능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예술가는 자신의 언어를 통해서 대상에 대한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전달한다. 특히 낭만적인 예술가들은 예술의 기능을 본질적으로 표현에 있다고 보고, 예술의 기능이 과학의 기능과 질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하였다. 과학이나 예술은 다 같이 우리들이 경험하고 있는 사물 현상에 질서를 주는 방법이라는 것이다. 과학이나 예술의 목적이 진리를 밝히는 데 있으며, 그들의 언어가 갖는 의미는 그 언어가 가리키는 지시 대상에서 찾아진다는 것이다.
그러나 예술의 언어가 과학의 언어처럼 지시적 기능을 갖고 있다는 사실은 예술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다. 다빈치의 「모나리자」는 모나리자라는 여인을 모델로 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인물을 지시하고 표현했기 때문에 예술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 예술 작품은 실재 인물과 상관없이 표현의 결과물로서 존재한다. 이처럼 예술 작품은 의미를 갖는 언어 뭉치로서 존재하는 것이다. 예술이 '말할 수 없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는 견해도 여기에서 비롯된다.

① ㉠에 대한 예시를 들고 있다.

② ㉠에 대한 개념을 밝히고 있다.

③ ㉠과 ㉡의 공통점을 기술하고 있다.

④ ㉠과 ㉡을 인과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 예술과 ㉡ 과학을 설명하는 글의 진술 방식을 파악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예술은 대상에 대한 생각이나 느낌을 표현하는 언어 활동으로 설명된다. 과학은 사물 현상에 질서를 부여하고 진리를 밝히는 설명 활동으로 제시된다. 글은 두 영역의 공통점을 제시한 뒤, 예술 언어가 과학 언어와 같은 지시적 기능을 한다는 견해를 비판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다빈치의 「모나리자」가 실제 인물을 그대로 지시해서 예술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례를 들어, 예술 작품이 표현의 결과물로 존재함을 보이고 있다.
② O: 예술의 본질을 표현으로 보고, 예술 언어의 의미가 지시 대상에만 있지 않다는 설명을 통해 ㉠에 대한 개념을 밝히고 있다.
③ O: 과학과 예술이 모두 사물 현상에 질서를 부여하고 진리를 밝히려 한다는 내용을 제시하여 두 대상의 공통점을 기술하고 있다.
④ X: 글은 ㉠과 ㉡ 사이의 원인과 결과를 분석하지 않는다. 틀린 표현은 '인과적으로 분석'이다. 올바르게는 두 대상의 공통점을 제시하고, 언어의 지시적 기능을 둘러싼 차이를 비교·대조하고 있다.

오답 포인트

글에 '예술이 과학과 마찬가지로'라는 표현과 '그러나'가 함께 나타나므로, 둘의 관계를 인과 관계로 오인하기 쉽다. 앞부분은 공통점을, 뒷부분은 예술 언어와 과학 언어의 차이를 설명하는 방식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두 대상을 함께 제시한 글에서는 원인·결과를 나타내는 근거가 있는지 먼저 확인한다. 공통점, 차이점, 사례, 개념 정의가 중심이면 인과적 분석이 아니라 비교·대조 또는 설명 방식으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공통점 제시와 차이점 설명은 비교·대조이고, 원인과 결과의 연결이 있어야 인과 분석이다.

NoteBase

문 20. ㉠과 ㉡에 대한 글쓴이의 견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대중예술'이라는 용어는 다소 모호하게 사용된다. 이 용어는 19세기부터 쓰였고, 오늘날에는 대중매체 예술뿐 아니라 서민들이 향유하는 예술에도 적용된다. 이 용어의 사용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비판과 의문은, 예술이란 용어 자체가 이미 고유한 미적 가치를 함축하고 있기 때문에 대중예술이라는 개념은 본질적으로 모순이며 범주상의 오류라는 것이다. 이 같은 논쟁은 고급 예술과 대중예술 사이의 위계적 이분법 아래에 예술 대 엔터테인먼트라는 대립이 존재함을 알려 준다.

대중예술과 마찬가지로 엔터테인먼트는 고급 문화와 대비하여 저급한 것으로 널리 규정되어 왔다. 결과적으로 엔터테인먼트와 대중예술에 관한 이론은 대개 두 입장 사이에 놓인다. ㉠첫 번째 입장은 엔터테인먼트가 고급 문화를 차용해서 타락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엔터테인먼트를 고급 문화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종속되며 그것에서 파생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두 번째 입장은 엔터테인먼트를 고급 문화와 동떨어진 영역, 즉 고급 문화에 도전함으로써 대립적인 태도를 유지하면서 엔터테인먼트 자체의 자율적 규칙, 가치, 원리와 미적 기준을 갖고 있는 것으로 규정한다.

첫 번째 입장은 다양한 가치를 이상적인 진리 안에 종속시킴으로써, 예술의 형식과 즐거움의 미적 가치에 대한 어떠한 상대적 자율성도 인정하지 않는다. 두 번째 입장은 대중예술에 대한 극단적 자율성을 주장하는 것으로서, 고급 예술이 대중예술에 대하여 휘두르고 있는 오래된 헤게모니의 흔적을 제대로 평가하지 않을 뿐 아니라 고급 예술과 대중예술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지 못한다.

① ㉠은 고급 문화와 엔터테인먼트 사이의 위계성을 설명하지 못한다.

② ㉠은 대중예술과 엔터테인먼트에 비해 고급 예술과 고급 문화의 우월성을 강조한다.

③ ㉡은 고급 예술과 대중예술 사이의 관계성을 설명하지 못한다.

④ ㉡은 고급 예술과 고급 문화에 대해 대중예술과 엔터테인먼트의 독자성을 강조한다.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고급 예술·고급 문화와 대중예술·엔터테인먼트의 관계를 보는 ㄱ과 ㄴ의 견해를 구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ㄱ은 엔터테인먼트를 고급 문화에 의존하는 파생물로 보는 위계적 견해이다. ㄴ은 엔터테인먼트와 대중예술이 고급 문화·고급 예술과 동등한 자율적 영역이라고 보는 견해이다. ㄱ은 위계와 종속, ㄴ은 자율과 독자성이 핵심 키워드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ㄱ은 엔터테인먼트가 고급 문화를 차용하여 타락시키며, 고급 문화에 전적으로 의존·종속된다고 본다. 따라서 "위계성을 설명하지 못한다"가 틀린 표현이다. 올바르게는 ㄱ은 고급 문화와 엔터테인먼트 사이의 위계성을 전제하고 강조한다.
② O: ㄱ은 대중예술·엔터테인먼트를 고급 예술·고급 문화에 의존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후자의 우월적 지위를 강조한다.
③ O: ㄴ은 대중예술의 극단적 자율성을 주장하여 고급 예술이 대중예술에 행사해 온 헤게모니와 양자의 관계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
④ O: ㄴ은 엔터테인먼트와 대중예술이 고급 문화·고급 예술과 동등한 영역이며 자체의 규칙·가치·미적 기준을 갖는다고 보므로, 독자성을 강조한다.

오답 포인트

ㄱ은 대중예술·엔터테인먼트의 자율성을 부정하는 견해이다. 이 부정을 "위계성을 설명하지 못함"으로 바꿔 말하면 ㄱ의 주장과 반대가 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의존·종속·파생"이 나오면 위계적 ㄱ으로, "동등·자율·독자 기준"이 나오면 자율적 ㄴ으로 판단한다. ㄴ은 자율성을 강조하는 나머지 역사적 위계와 양자의 관계를 설명하는 데 한계가 있다.

암기 포인트

ㄱ=종속·위계, ㄴ=자율·독자성, ㄴ의 한계=위계의 역사와 양자 관계 눌락이다.

NoteBase